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9월 29일(일) 제1509호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9월 22~28일 송도컨벤시아서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200여 개국에서 5,300여 명 참석, 영향력 및 아이디어 공유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 제4차 로잔대회가 지난 9월 22~2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를 주제로 막 올랐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 신학자, 기업가, 정치인, NGO 활동가 등 5,3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참가자 5천여 명, 자원봉사자 2천여 명, 중보기도자 4천여 명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에 원하시는 선교와 세계 복음화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강력하게 선포했다. 그 아름다운 선포를 <서울선언문>에 담아 발표했다.

9월 21일(토)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타워 아셈볼룸에서 ‘지도자 리셉션’이 열렸다. 국제로잔위원회 및 한국로잔위원회 지도자, 정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9월 22~28일 4차 로잔대회
개회예배부터 폐회예배까지

9월 22일(일) 오후 6시 30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차 로잔대회 개회예배를 드렸

다. 한국 위심팀 아이자야61(ISAIAH61TY ONE)과 안무팀이 연합공연 했고, 사회는 사이먼 서우(Indigitous 공동설립자)와 텔핀 판폰(Me4Real International CEO)이 봤다. 정계 인사 환영사도 이어졌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윤석열 대통령 축하를 대독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환영 인사를 했다. 이재훈 목사의 개회사, 마이클 오 총재의 제4차 로잔대회 소개, 유리 크리엘(Jurie Kriel)과 유지영 자매의 ‘협력 행동’(Collaborative Action) 주제 발표도 했다.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제4차 로잔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이 열렸다. 매일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성령강림’, ‘선교공동체’, ‘핍박과 선교’, ‘일터사역과 세계선교’, ‘섬기는 리더십’, ‘땅끝까지 왕되신 예수를 전하자’를 일별 주제로 정하고 성경 강해, 주제 강의, 소그룹 토의, 12개 지역별 모임, 25개 이슈트랙 모임, 저녁 집회 등을 했다.

23일(월) 주제는 ‘성령 강림’이었다. 페미 아텔레예(Femi Adelye) 성경 강해, 빌리 윌슨(Billy Wilson) 박사, 크와베나 아사모아 기아두(Kwabena Asamoah Gyadu) 목사, 화웅(Hwa yung) 감독, 사라 브뤼엘(Sarah Bruel) 선교사 주제 강의, 지역별 모임, 갱스(GAPS) 모임, 캐서린 헤이호(Katharine Ha

yhoe) 교수, 루스 파디아 데보르스트(Ruth Padilla Debors) 박사, 본 로버츠(Vaughan Roberts) 목사 저녁 집회 발표를 했다.

24일(화) 주제는 ‘선교공동체’였다. 성경 강해, 주제 강의, 소그룹 토의, 지역별 모임, 갱스 모임, 저녁 집회, 로잔운동 50주년 기념식 등이 진행됐다. 안네 자키(Anne Zaki) 박사, 에프라임 텐데로(Efraim M. Tendero) 감독, 데니스 마가렛 톰슨(Denise Margaret Thompson) 교수, 데일 스티븐슨(Dale Stephenson) 목사, 마이클 오(Michael Oh) 총재 등이 강의했다.

25일(수)은 ‘핍박과 선교’가 주제였다. 패트릭 펑(Patrick Fung) 목사 성경 강해, 바부 베르게스(Babu Verghese) 박사, 파르시드 파시(Farshid Fathi) 목사, 사라(Sara Akhavan Nielsen) 자매가 주제 강의를 했다. 소그룹 토의, 갱스 모임, 지역별 모임, 저녁 집회 ‘성찰’ 등도 이어졌다. 김병연 교수(서울대학교)가 주제 강의, 기드온 파라 말람(Gideon Para Mallam) 목사, 리아드(Riad Kassis) 형제가 박해 지역 소식을 전했다.

26일(목)에는 ‘일터사역과 세계선교’를 주제로 성경 강해, 찬양집회, 주제 강의, 소그룹 토의, 갱스 모임, 저녁 집회 등을 했다. 줄리아 가사겐(Julia Garschagen) 소장 성경 강해, 밥 돌(Bob Doll) 의장, 마크 비스바삼(Mark Visvasam), 소나 카잔지안(Sona Kazanjian), 맥 피어(Mac Pier)가 오전 주제 강의를 했다.

조셉 바이자얌(Joseph Vijayam, 로잔운동 일터 사역 담당자)은 ‘로잔 일터 사역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저녁 집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열두 돌’을 주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와 부흥을 소개했다.

27일(금) 주제는 ‘섬기는 리더십’이었다. 성경 강해, 주제 발표, 패널 토의, 청년리더모임(YLT, Younger Leaders Team) 소개 및 임명식, 갱스 모임, 저녁 집회 ‘화해’가 이어졌다. 성경 강해는 필립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패널 토의는 나나 야 오페이 아우쿠(Nana Yaw Offei Awuku)와 올레 매그너스 올라프 스투드(Ole Magnus Olafsrud)가 진행했다. 저녁 집회에서는 루비(Ruby)가 ‘성적 착취’를 주제로 발표했다.

9월 28일(토) 폐회예배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성경 강해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주제로 호날두 리도리오(Ronaldo Lidorio) 목사가 했다. 주제 강의는 릭 워렌(Rick Warren), 조은아 박사, 미셸 켄모니(Michel Kenmogne) 박사, 알란 마타모로스(Allan Matamoros)가 했다. 마이클 오 총재 발표, 서약식, 성찬식 등도 이어졌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당 회

일시: 10월 5일(토),
서빙고 비전홀, 오전 6시
안간: 장로후보선출안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그 현장 속으로!

월요일(23일), '성령강림' ————— 인종, 나이, 성별 뛰어넘어 성령의 임재로 하나 되다!

제4차 로잔대회 23일(월) 주제는 '성령강림'이었다. 오전 9시, 인천 송도컨벤시아 메인홀에 인종과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성령강림을 간구하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이 집결했다.

첫날 성경 강해는 페미 아델레예(Femi Adelye) 목사가 맡았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늘 기도해 힘쓰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자"고 권면했다.

그룹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주제는 '오늘날 여러분의 지역에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등이었다.

오전 주제 강의에서는 '부흥'을 주제로 빌리 윌슨(Billy Wilson) 박사, 크와베나 아사모아 기아두(J. Kwabena Asamoah-Gyadu) 목사, 화웅(Hwa yung) 감독, 사라 브뤼엘(Sarah Bruel)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빌리 윌슨 박사는 '부흥 운동'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구원에 관한 확신과 핏박에 대

한 유연성,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연합을 이룰 때 전 세계에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와베나 아사모아 기아두 목사는 '고아로 버려지지 않으신다'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을 때 권능이 부여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웅 감독은 '보루네오 정글의 부흥'을 주제로 경험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증했다. 그는 "1928년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주에 선교사 3명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당시 약 3~4천 명으로 구성된 소수 부족 룬바왕(Lun Bawang) 구성원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흥이 일어났다"고 간증했다.

사라 브뤼엘 선교사는 '회개를 향한 부르심, 부흥을 위한 회개'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200여 개국에서 모인 우리가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회개할 때 부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했다. 그리고 강의를 마무

리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를 시작했다. 5천여 참가자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 민족과 교회의 죄를 회개했다. 깊은 감동과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강한 성령의 임재 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에는 갭스(GAPs) 모임이 이어졌다. (대위임령보고서)에 담긴 과제 중에서 25개 주제를 선별해서 소그룹 토론을 했다. 주제는 다음 세대 전도, 이슬람, 일터사역 등이었다.

오후에는 '회개'를 주제로 저녁 집회가 막 올랐다. 캐서린 헤이호(Katharine Hayhoe) 교수, 루스 파디아 데보르스트(Ruth Padilla Deborst) 박사, 본 로버츠(Vaughan Rovers)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캐서린 헤이호 교수는 "기후 위기를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루스 파디아 데보르스트 박사는 '정의'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기도하며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 로버츠 목사는 '성과 정체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성적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들이 정체성에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고 회개와 변화의 중요성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녁 집회에서는 한국 워십팀 '아이자야61'(ISAIAH61TYONE)이 찬양을 인도했다. 그런데 음향 문제로 집회가 잠시 멈췄다. 달아오른 열기가 꺼질 것 같아 그 순간 참석자들이 손을 들고 무반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으며 축복하며 기도했다. 바로 그 장면이 '성령 강림' 그 자체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시작된 찬양은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 박지혜 기자

화요일 (24일), '선교공동체' —————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우리는 모두 선교공동체!

제4차 로잔대회 셋째 날 아침,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전 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집회로 피곤할 법도 한데,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오직 기쁨과 기대가 가득한 표정들이었다.

오전 성경 강해에서는 안네 자키(Anne Zaki) 박사가 '선교공동체'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모든 교회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선교를 이루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룹별 토론도 이어졌다. '선교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 실제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나눴다.

오전 주제 강의도 '선교공동체'를 주제로 이어졌다. 에프라임 텐데로(Efraim M. Tendero) 감독, 데니스 마가렛 톰슨(Denise Margaret Thompson) 교수, 데일 스티븐슨(Dale Stephenson) 목사가 강의했다.

에프라임 텐데로 감독은 "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해 '평신도 중심의 사역 주체 변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제자도 사역', '젊은 세

대 세우기' 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니스 마가렛 톰슨 교수는 'Z세대와 정신 건강'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교회는 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믿음을 키워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 스티븐슨 목사는 '개인의 제자도'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예수님은 배운 것 없고, 평범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면서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선교에 관한 25개 주제별 갭스(GAPs) 모임을 했다.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선교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했다. '고령화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 전도 전략은 무엇인가?' (세계 고령화 인구), '다음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복음 전도 전략은 무엇인가?' (다음세대 전도), '무슬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선

교/교회, 조직/사역자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이슬람), '성과 성별에 관한 현대의 대화는 어떻게 복음의 타당성을 형성하는가?' (성과 성별) 등이 주제였다.

저녁집회에서는 로잔대회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참가자들이 하나 되어 로잔대회 50주년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공유하고자 각 나라 전통의상을 입었다. 저녁집회 1시간 전부터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로비에 모여 사진을 찍고,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천국 잔치가 따로 없었다.

저녁집회 주제는 '기쁨'이었다. 로잔대회 50주년 축하 영상 상영, 로잔대회 참가자들의 간증, 전(前) 로잔대회 기획자들의 대담, 축하 공연, 드라마틱의 특선, 마이클 오 목사의 설교, 로잔 리더십 격려 및 임명식, 찬양 콘서트 등이 이어졌다.

마이클 오 총재는 '미래'를 주제로 설교했다. 그는 "향후 50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전략적이고 아름다운 협력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지난 1~3차 로잔대회 참가 이후 삶이 바뀐 참가자들이 간증을 했다. 마리아는 "로잔대회 참가 이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했다.

저녁집회의 하이라이트는 게티 밴드의 축하 공연과 찬양 콘서트였다. 게티 밴드의 멋진 연주에 흠뻑 젖은 참가자들이 발을 구르고,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며 축제를 즐겼다. 미리 준비한 고깔, 안경, 머리띠 등의 소품을 착용하고, 풍선과 폭죽을 터뜨리며 로잔대회 50주년을 축하했다. 찬양 콘서트에서는 참가자들이 옷이 흘러내리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참가자 몇몇은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 줄 기차를 만들어 대회장을 돌면서 어린이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뜨거운 천국 잔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그 현장 속으로!

수요일(25일), '핍박과 선교' ————— 도전과 역경 속에서 세계가 하나 되는 바로 그 순간!

25일 주제는 '핍박과 선교'였다. 패트릭 펑(Patrick Fung) 목사가 '박해와 선교'를 주제로 성경 강해를 했다. 오전 주제 강의에서는 바부 베르게스(Babu Verghese) 박사, 파르시드 파시(Farshid Fathi) 목사, 사라(Sara Akhavan Nielsen) 자매가 메시지를 전했다.

바부 베르게스(Babu Verghese) 박사는 '인도 교회에 대한 박해와 선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지금 인도의 기독교공동체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해의 가장 큰 원인은 개종금지법 제정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2024년 8월 초, 인도에서 가장 엄격한 '개종금지법'이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바부 베르게스 박사는 이 박해로 인해 오히려 인도 기독교공동체에 세 가지 긍정적인 영향력이 생겼다고 했다. ▷성도들이 폭력과 유혈 공격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지역 교회에 참여하도

록 도전을 받았으며, ▷불신자들이 기독교 박해 소식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와 성경적 신앙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파르시드 파시(Farshid Fathi) 목사는 '어떻게 박해가 이란에서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는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이란에서 사역하다 체포돼 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박해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교회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성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사라(Sara Akhavan Nielsen) 자매도 이란의 박해를 설명했다. 그녀도 이란에서 교회 개척사역을 하다가 체포돼 수감생활을 했다. 사라 자매는 "박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저를 체포하고, 독

방에 가졌습니다. 며칠 동안 독방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성도들이 다른 가정을 양육하고 있었고, 7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그 어떤 방해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전파됩니다."

오후 6시 30분 막 오른 저녁 집회 주제는 '성찰'이었다. 김병연 교수(서울대학교)가 '북한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며 북한의 현재 상황을 알렸다. 김 교수는 "경제 상황 악화로 주민들의 생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기드온 파라 말람(Gideon Para Mallam) 목사와 리아드(Riad Kassis) 형제는 중동과 사하라 이남 지역의 박해 소식을 전했다. 기드온 파라 말람 목사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와 테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엄청

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자에게 맞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리아드 형제는 "현재 그곳의 상황에 관한 책과 보고서를 읽고, 우리가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이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모든 핍박과 박해를 막아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했다. 수단, 미얀마, 인도, 이라크,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예멘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박해를 받는 50개국의 이름이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로잔대회 참가자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찬양했다. 도전과 역경 속에서 세계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목요일(26일), '일터사역과 세계선교' ————— 일터,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선교지!

26일 주제는 '일터사역과 세계선교'였다. 이날도 은혜의 연속이었다. 특히 집회장 앞에서 둥글게 모여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참가자들을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

이날 성경강해는 줄리아 가사겐(Julia Garschagen) 소장이 '초대교회에서의 일터 사역'을 주제로 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하기에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소그룹 토의가 이어졌다. 주제는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격려나 도전을 공유해주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등이었다. 참가자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지 그 방법을 공유하고, 자신의 일터에서도 실천하기로 결단했다.

오전 주제 강의는 밥 돌(Bob Doll) 의장, 마

크 비스바삼(Mark Visvasam), 소나 카잔지안(Sona Kazanjian), 맥 피어(Mac Pier) 박사가 '도시와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주제로 했다.

밥 돌(Bob Doll) 의장은 "문화적 영향력, 전략적 통찰력, 자선활동 등으로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비스바삼(Mark Visvasam)은 "인도 첸나이에 교회 4천 개를 개척해 기독교 인구를 1만 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이고,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소나 카잔지안(Sona Kazanjian)은 "폭력과 경제 붕괴로 중동의 교회가 거의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놀랍고 신기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했다.

맥 피어(Mac Pier) 박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성적이고, 희생적인 연합으로 함께 일하는 것보다 강력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Q&A도 이어졌다. 아르슬란 아리프(Arslan Arif), 조안나 응(Joanna Ng), 카라 콜리모어-래칠리(Dr. Khara Collymore), 메라리 페나 비달(Merari Vidal)이 패널로 참석해 일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나눴다. 조셉 바이자얌(Joseph Vijayam) 로잔운동 일터사역 담당자는 '로잔 일터 사역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전 세계 교회 평신도들이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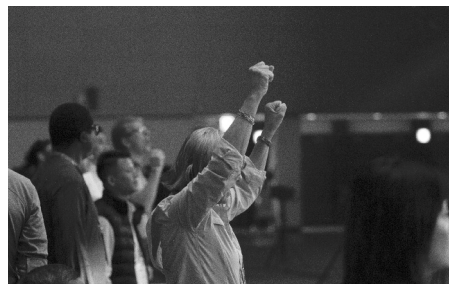
오후에는 '디지털 시대의 사역', '다중심적 선교사역', '공동체에서 증진되기' 등을 주제로 갭스(GAPs) 모임을 했다.

저녁집회는 '새로움'을 주제로 막 올랐다. 장종현 목사가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로잔운동으로 세계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국 교회의 열두 돌'을 제목으로 로잔운동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도 이어졌다. 1막 '부흥', 2막 '선교지에서 선교국으로', 3

막 '길 위의 한국교회'가 주제였다. 유기성 목사, 이규현 목사, 주승중 목사 등이 한국 교회의 역사적 사건과 신앙을 상징하는 열두 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 교회의 열두 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다. 천막에서 시작된 교회, 북한 지하교회에서 들려온 속닥거리는 기도소리, 평양대부흥 운동, 한글로 번역된 성경 등 한국 교회 밑거름이 된 역사를 돌에 빗대 소개했다. 그 의미를 알아갈수록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감사', '회개', '소망', '축복'의 기도도 이어졌다. 문대원 목사 감사기도, 김다위 목사가 축복기도를 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세계 선교를 완수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그 현장 속으로!

금요일(27일), '섬기는 리더십'

우리는 예수님 닮은 겸손한 섬김의 종!

다섯째 날은 유독 차세대들이 눈에 띄었다.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대회장에 입장하는 남매, 포토존에서 까르르 웃으며 기념 사진을 찍는 여섯 살 남짓 여자 아이, 로비를 뛰어다니는 남자 아이 등 천진난만한 차세대들이 대회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오전 집회 찬양을 한 게티 밴드의 공연에도 아이들이 올랐다. 게티 부부의 자녀들이었다.

이날 주제는 '섬기는 리더십'이었다. 필립 라이켄(Philip Ryken) 박사는 성경 강해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복음, 성령, 교회, 다른 지도자,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

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로잔운동 젊은 리더들과 함께하는 패널 토의, 청년리더모임(YLT, Younger Leaders Team) 소개 및 임명식, 세대 간 대화,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 등도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서는 나나 야 오페이 아우쿠(Nana Yaw Offei Awuku) '세대 간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적 비전', 올레 매그너스 올라프 스루드(Ole Magnus Olafsrud) '성경적 부르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4명의 젊은 리더들(샘(Sam), 델핀(Delphine), 조카버드(Jocabed), 라빌(Ravil))과 함께 교회에서 각기 다른 세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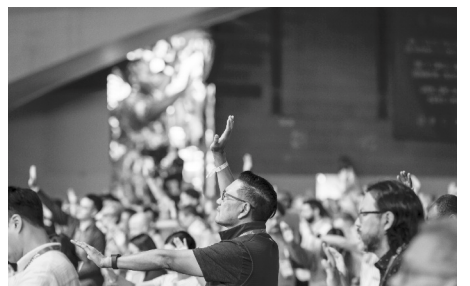
소통하고, 동역자가 되는 방법도 공유했다. 샘(Sam)은 "각기 다른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정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제4차 로잔대회 마지막 갭스(GAPS) 모임을 했다. 참가자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기 위해 일상에서 인공지능(AI) 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교회와 선교 조직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화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토론하며 답을 구했다.

저녁집회는 '화해'를 주제로 막 올랐다. 루비(Ruby)가 '성적 착취'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는 무고한 아동의 삶을 파괴하는 큰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아동 성 착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아동보호단체를 지원하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숨은 영웅, 중보기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에 숨은 영웅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와 자원봉사로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제4차 로잔대회가 이어진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자 4천여 명, 자원봉사자 2천여 명이 이롭고, 빛도 없이 헌신하고 섬겼다. 그들을 만났다.

지난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 모였다. 기도의 용사들은 제4차 로잔대회 아침 집회와 저녁 집회 현장 생중계를 보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현장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를 뽐냈다. 통로에 앞다투어 기도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휴식시간에도 기도는 쉬지 않았다.

제4차 로잔대회 참가자들이 갭스(GAPS) 모임을 하는 그 시각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집회가 열렸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설교하고, 함께 찬양하고, 제4차 로잔대회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부르짖었다. 제4차 로잔대회가 이어지는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회 참가자들, 리더십, 스태프, 한국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박옥자 권사(이촌공동체)는 "모든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감사"라면서 "제4차 로잔대회 참가자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열방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윤선영 권사(마포공동체)는 "중보기도로 제4차 로잔대회의 한 부분을 섬길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큰 영광"이라며 "4차 로잔대회를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했다"고 말했다.

현경자 권사(서대문공동체)는 "많은 성도와 함께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온 열방을 위해 무릎 꿇겠다"고 다짐했다.

2천여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났다. 제4차 로잔대회 자원봉사자들은 안내팀, 식사팀, 야간킵업팀, 공항 입국환영팀, 주차팀, 의료팀, 충전스테이션팀, 보안팀, 프레젠테이션, 위생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꼭 필요한 영역에서 섬김의 열매를 맺었다. 따뜻한 미소로 참가자들을 맞이했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곳곳을 살피고, 식사 준비와 배식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다.

백현경 집사(양재온누리교회, 안내팀)는 "순전한 복음과 사명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다"면서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 이땅에 영적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김은영 선교사(이스라엘, 식당팀)는 "작은 섬김을 큰 위로와 감사, 기쁨으로 받아주는 참가자들 덕분에 오히려 섬기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제4차 로잔대회에서 하나 된 것처럼,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10월 26일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대상 설문조사 실시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를 개최한다. ‘미래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10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문제인식 및 공유(소강의 및 발표회), 우리의 미래(주제강의), 실천방안 구체화(패널 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제인식 및 공유’에서는 대학청

년 주제공모 발표, 공동체 우수 사례 공유, 청년세대 전도 등을 주제로 강의와 발표를 한다.

‘우리의 미래’에서는 이재훈 위임 목사 ‘생명력 있는 미래 공동체 모습’, 박태성 집사 데이터 및 설문 분석(온누리교회의 현황 및 미래), 대학청년 우수 공모작 발표 및 시상을 한다.

‘실천방안 구체화’에서는 ‘교회의 미래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리더십 패널

토의를 한다.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가 진행한다.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에서 교회 내 세대통합과 성장을 위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구글폼(<https://forms.gle/pSH1YPiWW5u7brPLA>)이나 QR 코드로 참여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90회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90회 성령수련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90회 성령수련회는 ‘성령! 소망의 능력’을 주제로 10월 5일(토) Acts29 비전빌리지 시안홀에서 열린다. 황신연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 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문의: 02-3215-3533

소천

9/14(토) 송파B장성수성도모전상고박옥신
9/14(토) 분당B김의석성도부친상고김영중
9/14(토) 강남B김민성성도부친상고강원호
9/14(토) 동대문중앙김성봉집사빙부상고장준호
9/14(토) 이촌김성철성도부친상

심도의성도시부상,
광운대학교김형철목사부친상,
염은주사모시부상고김왕중

9/14(토) 서대문고은정성도모전상
방병원성도빙모상고김정숙
9/15(일) 과천의왕김영미권사부친상고김태성
9/17(화) 경기A이규화성도모전상고서정숙
9/17(화) 여호수아노기현성도부친상고노규상
9/17(화) 서산온누리권석희성도부친상고권은정
9/17(화) 양천김형길집사모전상

윤연옥집사시모상고송무년
9/19(목) 경기A김수민권사시모상고해삼순
9/19(목) 강남A이순자성도시모상고최정숙
9/20(금) 강남E이진희성도모전상고김상분
9/20(금) 강남C최성윤성도시모상고이경임
9/21(토) 분당B김관중집사부친상고김용재
9/22(일) 브릿지33+고최문환성도

9/21(일) 동작박희주선교사모전상고김숙자
9/21(일) 신원산조재은성도모전상고이선숙
9/25(수) 가정사역주형석성도모전상

이영주권사시모상고김남순
9/25(수) 성동광진고황지원성도
9/26(목) 노원김신덕집사모전상,
김옥경성도시모상고박숙보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

10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하는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10월 21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 동료와 함께 가곡을 즐기는 아주 특별한 자리다.

탤런트 강석우 집사가 사회를 보고,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응광이 공연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10월 13일(주일)까지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좌석 당 2만 원.

문의: 카카오톡 채널 ‘강석우’ 채팅창



온라인커뮤니티 2024 하반기 개강

10월 8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가 하반기 개강을 한다. 10월 8일(화)부터 12월 3(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돌봄공동체다. 하반기 온라인커뮤니티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여성민 목사 와 구혜미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과 문화전도집회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10월 5~6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지정 차량만 교회주차장 이용 가능

10월 5일(토)과 6일(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10월 5일 오전 5시부터 6일 오후 10시까지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캠퍼스는 상황에 맞게 진행).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상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주차장은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차량도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 거북선 나루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

/ 홍하영 기자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이웃에게 복음과 쌀 배달!

9월 29일까지 나눔 대상자 접수 및 순, 개인별 현금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이하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 접수 및 감사의 쌀 현금 봉헌을 9월 29일(일) 마감한다. 아직 사르밧 프로젝트 접수나 현금 봉헌을 하지 못한 공동체와 성도들은 서둘러야 한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성경책과 쌀을 선물한다.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적기업)와 협업해서 친환경 무농약 쌀 한 포대(20kg)와 성경책을 전달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순과 개인은 9월 29일(주일)까지 쌀 20kg 한 포대 가격(6만5천원)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현금하면 된다. 현금은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봉헌하면 된다.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이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순에서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현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개인 참여는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는 1순위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한다. 나눔 대상자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메일을 발송할 때는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를 참조인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동체 이름과 공동체 담당목사, 대표장로 승인 여부도 밝혀야 한다(예: 중종로공동체 노치형 목사님과 이상도 대표장로님께 승인 받음). 사르밧 프로젝트 신청서는 서빙고와 양재는 이메일(서빙고: 24thanksgiving@naver.com, 양재: dbsansdbs@onnuri.org),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개강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이 개강한다. 서빙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6만 원이다. 양재는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회비는 5만 원이다. 참가신청은 10월 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 그리고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6637-7540(서빙고) 010-7228-5798(양재)

265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265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신길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0만 원.

265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하나 됨의 비밀, 성’ 등을 주제로 김성중 교수, 황규복, 김숙경 부부 강사, 김의수 센터장, 이범석, 이연숙 부부 강사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감사는 참 아름답고, 감사는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일시적인 기쁨을 준다면, 무조건적인 믿음의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큰 감사입니다. 감사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삶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의 진리에 굳건히 서고, 복음으로 영생을 얻고, 더 나아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삶을 사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에 대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

첫째,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15~16절). 오늘 본문에 열 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데,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자기를 고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낫게 해 주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그만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가 열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센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감사로 인해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

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에 서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조금 어색해 합니다.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함도 있습니다. 감사를 감사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롬 1:21).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깊은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함, 어리석음, 죄가 있습니다.

감사가 표현될 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살전 5:18).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면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교만하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괴로워합니다. 절망하고, 분노와 시기, 질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행복을 빼앗깁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십시오. 감사가 사랑의 선물로 나눠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의 잔치로 초대하는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축복의 자리, 행복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린다

둘째, 감사를 선택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17~18절). 감사는 선택입니다. 열 명의 한센병자가 나음을 얻었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 섭섭함과 분노, 좌

절과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 용기와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기보다 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얻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주권이 나와 함께함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 판단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택할 때 형통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생명을 유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욥 2:9).

요나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받은 것을 감사하지만, 점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감사로 나아가게 되고, 그 감사가 우리를 더 큰 형통의 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 성숙은 감사의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감사가 우리의 어두운 상황에 빛을 비추 줍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더 큰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삶에서 부딪치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끝내는 도구일 뿐 아니라 더 큰 감사의 문을 여는 형통의 도구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

셋째,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입니다(19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와 축복을 여는 열쇠이자, 마중물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은 적은 양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는 물이 엄청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육체적인 병을 치유 받는 것 이상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큰 축복을 얻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 겪었던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합니다. 매를 셀 수 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망망대해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 강을 건넜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벼들과 다투고, 적들과도 싸웠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협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협에 처하고, 태양이 작열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이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형제로 여겼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 중노동을 했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내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도 상하고, 햇빛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약함마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골 3:15).

감사가 우리를 형통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행복의 잔치로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마중물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감사로 닫힌 문을 열고, 감사를 축복의 마중물 삼아 매마른 삶과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우십시오. 감사는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마중물입니다. 감사로 무한한 축복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흐르게 하고, 막혀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회복

완전한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세계관 회복이 가장 근원적인 회복이다. 한 사람이 헌신하는 믿음의 틀(framework)과 삶에 대한 관점(viewpoint)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일 수밖에 없다. 성경 전체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딤후 3:16)과 믿음의 창시자(author)요, 완성자(finisher)이신 예수 그리스도(히 12:2)가 신앙과 삶의 근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해체주의와 상대주의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다.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적 사조의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1960년 ‘작가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을 선언하였다. 그는 작가가 의미의 근원이며, 해석을 위한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전통적 견해를 거부했다. 독자들이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의미를 창출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텍스트는 의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문화와 문화의 모든 영역이 이러한 틀과 관점이기에 우리 신앙의 관점, 성경 말씀을 대하는 관점도 이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나의 관점이 아닌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상대주의는 절대적 진리나 가치,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다.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사 21:25) 자기중심적 죄성을 극대화하고 부추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신앙과 삶이 뿌리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큰 은혜는 성경에 대한 관점의 회복이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를 들었다. 하지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적으로 믿고 순종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였다. 이 땅의 관점이 아닌

회복입니까?”

그리고 문제에만 집중하던 나의 시선이 마치 “종들의 눈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시 123:2)”이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다. 완전한 회복은 이 땅에서의 문제 회복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골 2:6), 더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갈 2:20),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요일 1:5), 그 완전한 회복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계 22:20~21).



강애리 목사
(온누리세계관학교,
바른교육진흥원)

“완전한 회복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된다.”

아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점, 성경에 대한 관점, 죄와 사탄에 대한 관점을 정신적, 도덕적으로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시력이 좋지 않은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안경을 찾아 끼는 것이다. 2011년 <충돌하는 세계관>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게 된 이후 아침마다 안경을 끼듯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장착하고 하루를 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성령이 말씀을 끝보다 달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동안 씨름했던 많은 문제의 실제적 회복도 경험하고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Full Recovery)의 약속을 주셨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묻고 또 물었다.

“하나님! 문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삶에서 과연 무엇이 완전한

특별기고

일론 머스크와 다른 문화적 기독교인들에 대한 희망

서구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독교가 세상에 해롭다고 주장해 온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이 더 늘고 있다. 탈기독교화 된 세상에서 그들은 종교에 대한 비판과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유감을 표명한 사람은 테슬라와 Space-X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다. 오랫동안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로 묘사되어 온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살고 있다는 이른바 ‘시뮬레이션 가설’ 같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 왔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기독교에 대한 존경심을 인정했다.

“저는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하고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마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뺨을 돌리는 데에는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독교 신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적 신념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사람을 고려할 때 인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의 원칙을 매우 신봉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조던 피터슨과 함께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최근 자신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나온 말이었다. 도킨스는 자신이 크리스마스 캐럴과 성당을 좋아하고, 이슬람과 달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괜찮은 문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며칠 전 일론 머스크는 기독교의 종교적 ‘기반’을 제거하고, 서구 문명의 ‘건물’이 서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하다고 쓴 래퍼이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주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머스크는 “당신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도미니언>을 쓴 유명 역사학자 톰 홀랜드와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정치가이자 작가 아얀 히르시 알리 등의 이름을 더하면 현재, 과거, (아마도) 흔들리는 불신자들이 신앙을 찬양하는 다소 눈에 띄는 라인업이 생겼다. 이들과 같이 과거 세속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든 이유 중에는 ‘Woke’ 이데올로기 부상이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탈기독교 사회에 나쁜 징조가 되었다. 2010년대 후반 이성 과 과학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신무신론’ 운동이 진보적 정체성 정치에 휩쓸려 사라졌다. 과학과 이성만 점차 도덕적인 마

녀사냥으로 대체되었고,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이제 성과 젠더에 대한 사이비 과학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인권, 정치적 평등, 과학과 예술에 대한 서구의 사상이 기독교 신학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 홀랜드의 책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사상은 대부분 문명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기독교가 사라진 서구에서 지속할 거라고 기대할 이유도 없다.

일론 머스크, 피터슨, 도킨스, 홀랜드 등이 예수는 종교에 진 빚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앙을 “위험한 망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신앙을 찬양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수백 년 동안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던 많은 사람의 결과이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 다음과 같이 썼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었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라고 입 다물고 침을 뱉어 악마로 죽일 수도 있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위대한 인간 스승이라는 헛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럴 의도

가 없었습니다.”

문화적 기독교는 기독교 세계관의 축복이 실제 성도들의 공동체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현실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주장한 지 며칠 만에 올림픽 개막식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옳은 것을 옹호하는 용기가 더 많아지지 않는 한 기독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의 말은 맞지만, 그가 놓친 것은 그와 전 세계 모두를 위해 기독교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좋은 소식이다. 이 교회나 저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기독교가 여기저기서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포하는 세상에 대한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세상을 이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베스트셀러 작가), 세인 모리스(콜슨 센터 선임작가, 업스트림 팟캐스트 호스트, 콜슨 센터 브레이크포인트 논평과 칼럼, WORLD 등 정기 기고)

원문: breakpoint(20240805)

이 시대 부모들에게

부모 안에 숨은 ‘결핍된 아이’를 만나라!



채경선 교수
(성산대학교학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자녀와 갈등을 겪거나 자녀 훈육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불쑥불쑥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나도 내 모습이 싫습니다. 내가 한심하고, 슬픔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싶지 않은데’가 그것이다. 이 단어에는 부모 마음의 결핍이 숨어 있다. 꼭꼭 눌러 담아 두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 숨어 있다. 늘 혼자인 게 익숙했던 외로운 아이, 배고프고 허기졌던 아이, 큰 소리에 겁먹고 위축된 아이,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참는 아이, 의젓하고 반듯해야만 했던 아이가 그 마음에 숨어 있다. 부모의 마음에도 결핍된 아이가 살고 있다. 해결되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싶지 않은데 튀어나오는 것이다.

지금의 부모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 바랐던 부모님, 무심했던 부모님, 정서적으로 거칠었던 부모님,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던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랑받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부모의 결핍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된다. 부모의 결핍을 자녀에게 요구할 때도 생긴다. 자신의 결핍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에 사는 결핍된 아이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부모 마음에 사는 결핍된 아이를 만난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동안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힘겹게 사는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

“부모 안에 있는 결핍된 아이를 안아줘야
자녀를 넉넉히 안아줄 수 있다.”

각박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까 봐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일은 알아서 했고, 필요한 거나 감정적인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이에게도 맡겨진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의젓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징징거리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 나의 결핍, 나의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것인지 모르고 내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 부모가 과거에 겪은 사랑의 결핍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 부모의 결핍을 기준으로 자녀를 잘 못 판단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과거를 잊고, 과거와 만나지 않으려 한다. 결핍된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마음은 사랑받고, 이해받을 때 채워진다. 채워야만 하는 내 마음의 결핍과 마주해야 한다. 결핍은 용기 내 마주할 때 채울 수 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과거를 보면 사랑의 결핍도 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아도 순간순간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지켜주었던 부모의 사랑이 있다. 학교 끝나고 돌아온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어머니, 자전거를 가르쳐주었던 아버지, 100점 맞아온 반아쓰기를 보고 기뻐하셨던 아버지, 밤새 아픈 나를 걱정하며 졸고 있던 어머니 등 아무도 모르게 나를 위해 애써주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있다. 그 순간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부모가 되는 길까지 이끌었을 수 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 부모님의 사랑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결핍을 마주할 때 그 사랑 한 조각도 함께 꺼내 보면 좋겠다. 결핍되었던 마음을 다독여주고, 사랑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부모 안에 있는 결핍된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자녀를 넉넉하게 바라볼 수 없다. 부모에게 결핍된 마음이 있으면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부모 안에 있는 결핍된 아이를 안아줘야 자녀를 넉넉히 안아줄 수 있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부모에게 4편 부모, 당신의 상처를 안아주세요’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그림 명난희



신앙 QUIZ



1.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정말 큰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전세계 복음주의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정치인 등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대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2. 이 대회의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였어요. 교회인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나눠주세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창조탐험대 참가 소감

결코 잊지 못할 창조탐험대!

창조탐험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뭐하는 곳일까?’ 궁금했다. 하지만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이 되고,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로 창조과학동아리에 들어갔다. 창조과학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창조탐험대에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수업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서 기독교인인 나는 창조론을 많이 접하지 못해 아쉬웠다. 그 아쉬운 마음을 창조탐험대에서 채우기로 했다. 실제로 창조탐험대에 참가하면서 창조론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창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도 배웠다. 창조 탐사를 하면서 학교 수업이나 자율동아리 활동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 대홍수 사건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는 유전학적 정보가 있다는 사실 등을 배웠다. 마이산, 채석강 등 대홍수 역사의 증거를 직접

볼 수 있는 현장을 가본 것은 큰 행운이었다.

창조탐험대에서 선교유적지도 방문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와 흔적들을 보고 배웠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하고, 감사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다. 거절당하고, 차별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향토병으로 가족을 잃거나 자기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도 계신다. 나였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처참했던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높이고, 여성과 아이를 위한 병원을 만든 마더 잉골스 선교사님 등 내가 몰랐던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사랑, 헌신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도 방문했

다. 금산교회는 ‘ㄱ자 교회’로 유명하다. 남녀 칠세부동석이라는 유교적 관념과 기독교가 결합된 독특한 모양을 가진 교회였다. 우리나라 문화와 융합하며 천천히 전해진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탐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정말 많다. 이번 탐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 주일예배를 이끌어주신 전도사님, 우리조를 이끌어주신 선생님까지 그분들 덕분에 창조과학탐사가 더욱 즐거웠다. 다음에도 창조탐험대에 다시 참가해서 창조론을 더 배우고 싶다. 나를 창조탐험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은서 학생
(양재 파워웨이브)

크리스천을 위한 회복시리즈 1. 복음과 회복 2. '행복 QT'와 행복반

“복음(福音)을 통한 회복(回福)!”

성주명 장로, 성아나 권사가 이야기하는 회복

이 시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 여기, 40년 동안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한 회복을 선물하는 부부가 있다. 성주명 장로와 성아나 권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부부는 기독교 상담과 소그룹, 회복사역 '행복반'을 운영하며 하나님만이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고 믿고,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고 있다. 그들 부부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통한 회복이 과연 무엇인지 물었다. / 김남원 부장, 홍하영 기자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성주명 장로(이하 성): “지금 세대는 무엇인가에 쫓겨 달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홀려 있고, 취해있습니다. 빠르게 반응하는데 깊이가 없고, 겉으로는 웃고 즐거워 보이는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거나 외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신(true self)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이 깨져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제도이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covenant)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부부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성장을 도모하며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키워야 합니다.”

성아나 권사(이하 아나): “한국의 체면 문화가 유독 심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향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성공물질제일주의'라는 잘못된 가치를 심어줬습니다. 경쟁 위주 사회에서 자녀들이 더불어 사는 훈련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을 발전시키면서 사회성이 부족해졌습니다. 전인격적인 성장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잘못 세워져 있어서 부모와 사회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남과 비교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깊은 좌절과 우울, 울분과 분노가 쌓이고, 반사회적 행동이나 중독 등에 취약해졌습니다.

가족과도 사이가 가깝지 않습니다. 한집에 살면서도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자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자녀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공부하느라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잃어버리고, 부부는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은퇴하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는 부부가 시간이 갈수록 남 같아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울과 이혼, 자살이 더욱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예수님의 제자

로 만드는 일은 가정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부모가 이것을 방지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뤄지기가 힘듭니다. 교회가 전부 해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는 열심이였으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차 사명인데 말입니다.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우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믿는 부모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아빠)들의 방향과 좌절, 고통이 무척 커 보입니다.

성: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교제권이 부족합니다. 삶의 문제나 고민 등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가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스승, 선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앙에서 오는 진실성(integrity)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제하거나 순이나 소그룹, 신우회 등에 참석해서 멘토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남성들이 열심히 사는데, 삶의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목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속해있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돕는 자가 되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등의 목표 설정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아나: “한국 남성들이 방향과 좌절, 고통을 크게 경험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성들을 부양자(bread winner)로만 보는 사회와 가정의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늦은 취업과 이른 은퇴로 인해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고, 그 부담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둘째,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윤리(work ethic)나 일하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사회에서 과도한 경쟁과 여러 종류의 부당함, 언

어폭력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한국 남성에게 주어진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친밀한 관계에 투자하지 않아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소원함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감이 더해지면 중독, 외도 등의 문제로 쉽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들에게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회복의 원리와 키워드가 궁금합니다.

아나: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 회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의 회복이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고,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더 많이 회복되면서 상호작용합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마음을 주십니다. 셋째, 회복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상처받고, 마음의 어두움을 경험하기에 회복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성: “회복의 키워드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이고, 누구의 아내이며, 누구의 남편이고, 내 부모가 누구인가가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고전 15:10). 동시에 '나는 용서 받은 자, 사랑받는 자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도 대단한 일인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한 방울 피도 귀한데 무려 4리터 보혈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쏟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세세히 계획하시고, 신묘막

측하게 지으시고(시 139:14), 내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기록하셨습니다(사 49:16). 그분의 사랑이 <로마서> 8:32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마 22:37-39).”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심리학, 상담학, 정신 건강 등 세상에서 활용하는 회복의 도구와 복음을 통한 회복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망나니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이미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신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소유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야단치실 때에도, 그 마음 깊숙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살면서 상실감이나 거절감으로 힘들 때 우울이나 자기 연민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신뢰로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의 실천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깊이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심리학, 상담학, 정신 건강 등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삶을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고통을 잊으면 회복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이지 못하고 표면적이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노력이 교회에서 이뤄졌는데 하나님은 왜 회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그분을 더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상담학, 심리학이나 정신 건강에서 추구하는 회복과 치유는 그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도하심을 배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의지하면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한 회복은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고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마 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마 12:31).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성령모독죄’로 자주 언급되는 구절이다. 많은 성도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고, 자신이 이 죄를 범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왜 ‘성령모독’이라는 특정한 죄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지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2장 31절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며 비난했다.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 하는 사람

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마 12:22-24).

“성령님의 역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악령의 힘으로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왜곡했다. 신학적으로 ‘성령모독’은 성령님의 분명한 역사와 증거를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말한다. 이는 일시적인 의심이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고의적이고, 완고한 불신을 의미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

씀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령모독죄는 실수나 의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명백히 보면서도 이를 왜곡하거나 거부하는 고의적인 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분의 인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님의 분명한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태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성령님의 역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이 말씀의 핵심 교훈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

9월 30일~10월 6일
〈느헤미야〉 13:23~31,
〈호세아〉 1:1~4:19



자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묵상하자.

▶유다 사람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 자녀를 낳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자란 것이다. 대제사장의 증손자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 단호히 책망하고, 문제가 되는 제사장들을 내쫓으며 신앙 공동체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 힘쓴다.

묵상포인트 2: 〈호세아서〉는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에 관한 이야기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 음란에 빠진 언약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전하신다. 영적 음란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묵상

묵상포인트 1: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는지,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하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신다. 음란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다. 고멜을 통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의미한다(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이후에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암미, 루하마). 이스라엘은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고 음란하게 바알을 따랐다. 이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다. 심판의 경고에는 회복의 약속도 따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공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사할 것이며,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복을 다시 누릴 것이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죄악에는 정계가 따르기에 하나님은 그분께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죄의 길로 가도록 마음을 유혹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음에도 그를 떠나 다른 남자를 따랐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온다. 이는 다른 신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에는 인애도, 진실도

없고 죄악만 가득하다. 백성은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었기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벌해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자손도 늘지 못하게 하신다. 음행과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음행과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지만, 유다는 그 죄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느헤미야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 위해 이방인과 결혼을 금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내가 신중하게 선택할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피자.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흠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묵상하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결국 죄의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 가기 위한 나의 노력을 점검해 보고, 말씀 묵상 시간을 철저히 구별해서 지키기로 다짐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몇 년 전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위의 일부를 잘라내고, 항암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셨고, 다시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고생하시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시고, 평소에도 설교 말씀을 찾아 들으셨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앓은 채로 자주 졸고 계시기도 하고, 일상적인 일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인지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자주 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또다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낙심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힘써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탈북민사역의 꿈 ‘복음통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자 선물!

21년 역사 자랑하는 온누리교회 탈북민사역



장정열 장로
(사회선교본부 한누리
통합팀, 통일위원회)

한국 교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온누리교회 탈북민사역은 21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온누리교회 탈북민사역의 시작은 탈북민 5명과 여호수아 청년 7~8명, 성인 몇 명이 만든 작은 모임이었다. 그 이후 담당교역자를 배정받고, 햇빛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학생기숙사를 빌렸다. 2년 정도 기도모임을 하면서 예배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북한선교교회 개성을 통해 동역자들을 양성하는 기쁨을 마련했다.

탈북민사역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공동체는 2003년 6월 ‘하나님이 향후 통일한국에 세우실 바로 그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햇빛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기숙사 501호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공동체 인원이 늘면서 예배 장소를 양재온누리교회 JDS홀로 옮겼다. 그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된 탈북민사역의 물줄기가 2010년 서빙고온누리교회, 2013년 부천온누리교회, 2014년 하나원사역팀, 2017년 남양주온누리교회와 대전온누리교회로 뻗어 나갔다. 2016년부터는 6개 공동체를 ‘한누리’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연합예배와 정기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20주년 연합예배를 드렸다. 지나온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예배였다.

탈북민사역, 한결같이 달려온 남쪽의 지체들

고난의 행군 이후 급증했던 탈북민 유입이 코로나19 이후부터 급감했다. 탈북민사역공동체의 사역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탈북민사역 초기에는 금홍사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탈북민 유입 인구가 느는 상황에서 그들의 적응을 돕는 일을 수년 동안 최우선으로 삼았다. 거기에 예배 출석을 독려하는 활동을 가미했다. 여러 교회에서 탈북민들이 예배에 출석하면 금전을 지원했다. 그런데 일부 탈북민들이 오전, 오후별로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중복 지원을 받는 문제를 일으켰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이 문제에 선을 긋고 규칙을 정했다. 그래서 예배 출석을 독려하는 활동을 현재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또 말씀과 예



“복음통일은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씨앗들이 마지막 대에 한반도를
제사장의 나라로 꽃 피우고 결실을 보게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자 선물이다.”

배, 순환동을 중심으로 탈북민들을 양육했고, 더 나아가 탈북민들을 예배자로 세우고자 했다.

하나공동체에서는 6~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탈북민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탈북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세뇌된 인식 체계가 나눔과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과정, 순예배에서 장애물이 되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순장과 양육자들을 넘어지게 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끝까지 변화를 기다려 주셨다. 순예배가 시간이 갈수록 안정됐고, 다락방 형태로 조직화하기에 이르렀다.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과정을 이수하는 탈북민들도 매년 늘었다. 최근에는 여러 양육 프로그램과 JDS(예수제자학교) 수료자도 늘고 있다.

감사하게도 탈북민들이 예배 찬양 섬김이나 순장으로 세워지고 있다. 목표인 직분자를 세워 남과 북이 비슷한 비율로 리더십을 구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20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남쪽의 지체들이 있다. 그 지체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새 힘을 얻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것이다.

‘복음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3만1천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에서 복음을 전파한 탈

북민이 1만여 명이다. 아직도 2/3에 해당하는 2만여 명의 탈북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육신의 자유만 누리며 살고 있다. 복음을 듣고 약 7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복음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선교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을 전도와 융합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탈북민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통일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 사역자로 쓰임 받고 싶다는 비전을 품은 이들을 종종 만난다.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3천여 명이 복음을 듣고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7천여 명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2만여 명의 탈북민을 전도하게 해야 한다.

둘째, 탈북민 영적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신학생 70명을 포함해서 20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그룹이 만들어졌다. 탈북민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도 9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부교역자 없이 미조직, 미자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목회자로 세워진 이들이 조직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새롭게 목회자의 비전을 품은 탈북민을 발굴해서 공부와 교회 개척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탈북민교회가 전국에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북과 남의 연합모임이 활성화돼야 한다. 복음통일의 비전은 공유하는데, 대부분 연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기도모임부터 연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가 시너지를 얻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3년 어느 공동체 2개 다락방이 2개 탈북민교회와 결연하고 섬겼다. 한 다락방은 목회자 부부와 리더십 몇 명을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으로 섬겼다. 2024년 9월부터 그 다락방과 결연한 교회는 자체적으로 주일 오후에 일대일제자양육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처럼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의 장점인 인프라를 이식하는 활동들이 1다락방 1사역 같은 네트워크 형태로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기도원의 300 용사를 세워야 한다. 복음통일을 위한 영적 전투 초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나라 간 왕래가 자유로운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그들을 통해 복음 전파를 받은 중국 내 많은 조선족이 여러고성 봉괴라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탈북해서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탈북민들과 이 땅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을 영적 전사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통일 이후 복음 전파를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에 빛진 모든 성도와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을 사명자로 세우도록 돕고, 함께 영적 전투에 당당하게 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차세대 리더들을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은 가나안땅 정복을 위해 모세를 세워 사명을 다하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완성하게 하셨다. 복음통일 대장정에서 하나님은 다음세대를 세우시는 일에 힘쓰신다. 기성세대와 대형교회가 모든 걸 내려놓고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무기를 비축하고, 휴전을 따라 방호장벽을 쌓는 게 더 견고해진 여러고성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가나안땅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혹은 여러고성을 돌던 마지막 날의 일곱 번째가 되는 그 순간인 것이다. 복음통일은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씨앗들이 마지막 대에 한반도를 제사장 나라로 꽃 피우고 결실을 보게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자 특별한 선물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 37:15~17).

장로칼럼

작은 변화가 나를 바꾼다!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우리네 인생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듯싶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수없이 많은 흔들림 속에서 자기를 단련시키고 알아간다. 아무런 변화와 어려움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뜻대로 되는 게 없으면 좌절한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겸손과 온유함에서 점점 멀어진다.

보수(保守)를 지킨다는 것은 전통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조직들은 보수를 지키면서도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려면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공감을 위해 중요한 자세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그저 들어주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애심(自愛心), 즉 친절함 마음을 갖는 것이다.

불편한 친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힘들고,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친구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너그럽게 넘겨주고, 묵묵히 공감하며, 신뢰해 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한다. 성급하게 비판하고 조언하기보다 스스로 알고 잘못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

용히 곁에서 격려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한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인의 길을 가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고난과 고통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게 신앙인의 미덕 아닌가 싶다. 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만, 그 대가가 두려워서 잘 변화하지 못한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며 그 길을 만들어 간다. 변화는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적용하는데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변화를 선택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났다. 그들은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과거 습관에서 떠났고,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였다.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능동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며 살아야 할까? 변화는 하루 밤 사이에 오지 않는다. 변화를 선택했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의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나부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나갈 때 가족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할 것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하고 행하면 이미 이룬 것’이라고 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탄생의 신비를 주셨고, 성장의 신비를 주셨으며, 열매 맺는 신비를 주셨다. 성령을 의지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교회 공동체 위에 담대히 서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마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라고 고백했다. 우리도 인생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권사칼럼

온유한 보호자와 하나님의 여정



최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관계
기술훈련학교 스태프,
국민대 교수)

우리는 아침마다 밝아오는 햇빛의 강렬함 같이 매일 예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순간이 어지기를 성령님 안에서 간구한다. 성령 충만한 예배의 마음과 상태로 일상과 험난한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함을 열망한다. 예배의 처소에서 물러나 현실을 살 때 혹은 광야를 걸을 때도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관계기술훈련학교(이하 관기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큰 선물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대면 활동이 멈춘 상황에서 공교롭게 나는 직장에서도 안식년을 갖게 되었다. 이 때다 싶어서 그동안 수강하고 싶었던 아이스쿨에 있는 귀한 강의를 들었다. 그렇게 관기훈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기준점의 삶을 시작한 것 같이, 관기훈을 만난 전후가 완전히 다른 영향력을 선물 받았다. 나와 나의 관계가 명확하고 평안해지고, 나와 타인과 관계의 복잡도가 내려가면서 이해가 되고, 숨이 쉬어졌다.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알게 되었다.

관기훈에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나눔의 존재인 사는 방법을 배운다. 관기훈 과정은 트랙 1, 2, 3으로 진행되는데, 트랙마다 전후반 과정이 있다. 총 6개 강좌를 1년 반 동안 수강한다. 매 트랙의 후반부 과정인 분향원에서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하우스에서 2박3일 훈련한다. 트랙 1 수강을 시작할 때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안식년을 마친 후에도 관기훈 트랙들

을 계속 들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우려와 달리 한 과정 한 과정을 지내면서 그동안 몰랐던 세계가 베일을 벗듯 나타났다. 기쁨의 강물 안에 그대로 합류하게 되었다.

관기훈에서는 스스로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산처럼 몰려올 때,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칠 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만날 때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시야로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 그 덕분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의 고통이 일어날 때 또다시 새 날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걷게 된다. 자신과 타인,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온유한 보호자로 초대받는다. 자신을 과거로 끌어당기는 밑이 없는 강한 힘을 가진 부정적인 감정들에 매몰되지 않고, 새롭게 오늘과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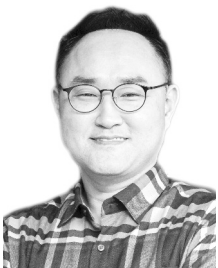
삶의 목표가 흔들릴 때 예수님이 주신 이름다운 인생 모델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절대 사랑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발을 내딛기를 소망한다.

관기훈의 충격적인 감동은 이 모든 과정을 헌신으로 섬기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팀장님, 총무님들, 조장님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공동체에 나도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귀한 동역자들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과 얼굴은 기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강렬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신청

신앙에세이



서영찬 선교사
(남양주M센터)

남양주M센터에서는 인도와 네팔예배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예배사역을 하고 있다. 유학생 예배와 모임을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사역도 담당하고 있다.

M센터는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역 현장이다.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의 선행과 기도로 예배공동체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예배공동체에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다.

인도예배에서 아하마드 형제를 만났다. 그는 인도 출신이지만, 무슬림 배경 가정에서 자랐

다. 아하마드 형제의 아들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슬픔을 인도예배공동체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일어서고, 걷고, 뛰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경험한 아하마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의 가족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회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하마드 형제와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을 목도했다.

올해 아하마드 형제가 여름수련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그가 깨어나더라도 온전한 몸으로 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그가 온전히 깨어났고, 건강한 몸으로 인도에 있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감동하기 어려운 금액의 치료비는 희년의료공제회, 기아대

책기구,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은 아하마드 개인에게도 큰 간증이지만, 인도예배공동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양재온누리교회 여호수아청년부 YES 그룹에서 안산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그 사역을 통해 이주민 선교를 알게 됐다. 그 이후 간사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훈련받으며 이주민선교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다. 이주민선교는 대위임령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현상이다.

이주민선교에 더 많은 교회와 공동체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최근 강동온누리교회와 마포공동체 아웃리치팀이 남양주M센터를 방문했다. 성도 146명과 이주민선교에 대해 공유했다. 성도들이 이주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이주민들의 손

을 잡아주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

남양주M센터는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성도와 선교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주민들에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봤다. 하나님이 이주민선교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DNA를 깨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의 이웃이 된 이주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DNA를 전해줘야 한다.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동역해주시는 성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신동아 쇼펍센터 3층(302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환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을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175기
지원자 모집
일시: 10월 26일~11월 23일(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회비: 12만 원
접수: 02-2182-9100, www.father.or.kr, 아
이스쿨
문의: 010-4467-1972, 02-2182-912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사역 시작 9월)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균 팀장(010-3388-533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1, 3주 주
일 연습은 10월부터 재개)
장소: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수련관 청소
년프로그램실 II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미현 010-8285-6435

CMN 마노아팀 의료진 모집
일시: 10월, 11월 셋째 주일 오후
*10월 20일 동두천 아프리카예배
*11월 17일 평택 인도네시아예배
분야: 산부인과 진료(여의사) 1명
문의: 류기선 팀장(010-2468-2755, 문
자 먼저 연락)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들을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텐
젤라홀 / 초등부 11:30 길보튼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2부 11:3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
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30 백향목홀(3층), 꿈팡(초등부)
11:30 알렐루(2층), 꿈팡(유년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텐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کل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도쿄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	---	--	---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감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연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승국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경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은재 김재석 김재승 김재철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필 김태용 김태일 김한국
김현실 김홍우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온 박성배 박성전 박전중
박정준 배현삼 배성우 배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이윤재 유현태 유미라 유찬우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한호 정한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보훈 조현수
진성미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우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중희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홍
신주용 송예찬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권철준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중균 김중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김대우 김현철
박씨마 백순현 비 킬 서영철

이민영 이만영 이은정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제인랑

장광석 장욱진 정요한 황연진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대림 권대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도모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민수 김승희 김예달 김예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현정 김동미 나가노
이도일 이등준 이미진 이민규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여민 방진이 사예찬 사현진
손위결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무택 양현모 엄경덕 오성광
이도일 이등준 이미진 이민규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이나단

이반석 이선혜 이소라 이시라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진수 이정민 이주영 이형준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진숙
장건우 장영주 전미연 장진우

정상원 정성민 정영영 정은영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수정

조우현 조운식 조강호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 은 최은영

최혜정 황은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세라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한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권영선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한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권영선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한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권영선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한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권영선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김남식 김남영 김명종 김명철

● 협동목사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승훈
김 원 김용성 김웅 김승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원철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중선

김종수 김지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정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김성관 김석봉 박석봉
문성기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홍식 문홍식 문홍식 문홍식
박성호 박영국 박영태 박영배

박용국 박우형 박우현 박찬민
박대섭 박홍근 배 문 배남인

박승웅 박호현 박홍기 박병선
서성열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송한기 송만식 송영배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상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수익 양주현 양재수

양대호 양성연 우광범 우승우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재원 윤석우 윤광범 윤성진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용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상길
이영세 이상철 이영경 이상하

이우곤 이웅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우 이재준 이재호 이경근

이중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영 이한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수 정광호 정강무 정대용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정대우

● 사무장로

강기홍 강은철 강창재 강창준
강신희 강은철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 사무장로

강기홍 강은철 강창재 강창준
강신희 강은철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강창재 강창준

● 사무장로

du+ duplus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2.0

두플러스가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PDF 뷰어 개선

모바일 뷰어
해상도가 개선되었고,
메모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TTS 기능 추가

모바일 뷰어에서
문장을 읽어 주고,
읽기 속도 및 슬립 타이머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검색 엔진 고도화

검색 범위·검색 기간 등
검색 필터를 적용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11월 오픈 예정

제휴 출판사 확대

다양한 출판사와의
제휴로 양질의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어요.

두플러스 2.0 오픈 기념 Event 지금 3개월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두플러스
프리미엄 플랜

- 한글·영어/세대별 QT
- 전자책·오디오북
- 생명의삶 PLUS·목회와신학
- 빛과소금
- 클래스
- 목회자료·성경검색·일반자료

쿠폰번호

0107A901M462B247

사용 방법

- ① 두플러스 홈페이지(www.du.plus) 로그인 ▶
- ② 우측 상단 ≡ 메뉴 > 쿠폰 관리 ▶ ③ 쿠폰번호 16자리 입력
- ④ 쿠폰 관리에서 [쿠폰 사용] 버튼 클릭

유의사항

- 2025.03.31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쿠폰은 PC에서만 등록 가능합니다.



새로워진 두플러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